

‘순천만정원·광명동굴’…지방 혁신 성공 주역 만났다

노관규 시장·양기대 전 광명시장 2시간 동안 정원 산책 대화 나누 지방행정 성공·벤치마킹 대상으로 “순천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양기대 전 광명시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소통했다. 순천시 제공

지방행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경기 광명동굴의 두 주역이 만남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2시간 동안 정원을 산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각자의 행정 경험과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는 1997년 당시 동아일보 법조기자와 검사의 역할로 만나, 28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는 두 기존 단체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다른 지방자

치단체로 확산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2006년 순천시장에 당선돼 순천만 국가정원의 구상을 시작했으며,

양 전 광명시장은 2010년 광명시장에 당선돼 광명동굴 개발에 나서면서 두 사람은 성공적인 지방행정을 이끌어냈다.

양기대 전 시장은 “노 시장이 순천만 국

가정원을 기획하고, 2022년 3선 시장이 되어 8개월의 어려움을 극복한 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과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저 또한 40년간 방치된 폐광인 광명동굴을 개발한 고난과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금까지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방문하며 세계적인 생태정원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재개장 이후, 순천시는 AI와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올해 10월 기준 방문객은 360만 명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1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는 순천시를 세계적인 생태정원도시로 재탄생시켰으며,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동굴 역시 양기대 전 시장의 노력으로 2016년 유료화 이후 14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그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 세외수입으로 80억 원을 기록하며 광명

을 새로운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지방행정의 혁신적 사례로,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광명동굴의 성공 사례는 두 현직 시장의 아이디어와 집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의 노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다. 이는 중앙정부를 넘어서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증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다수의 지자체장과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지방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이제 순천은 정원을 넘어서 기회, 교육, 문화도시 3대 특구를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고흥군 ‘제4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선정

대통령 표창 간호부문 정춘실



문제를 해소하고, 모금 활동으로 아이들의 학업을 후원하여 의사나 간호사 등 훌륭한 봉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심각한 빈혈에도 불구하고 진료소의 혈액량 비축을 위해 꾸준히 헌혈하는 등 제2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모습으로 소외된 곳에서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실천해 왔다.

봉사부문 수상자인 CCYP는 전국 27개 대학교와 4개 고등학교로 구성된 학생 동아리로, 학교별 혹은 연합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건축 봉사, 교육 멘토링, 마을 브랜딩, 벽화 그리기, 도시 재생 아이디어 제공, 모금 홍보활동 등 3300여 건이 넘는 활동과 4800여만 원의 기부로 열악한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세상의 온기를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제4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오는 29일 속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 울촌산단에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 들어선다

한화오션에코텍

울촌1산단 사업 현장에서 한화오션에코텍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박창환 경제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구충근 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대표이사, 최병환 상무 등 한화오션에코텍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에코텍은 내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울촌산단 약 19만4000㎡ 부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의 최상층 갑판 블록(Trunk Deck), 화물창(Cargo Tank) 등을 생산

하는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건립되면 운용에 필요한 530명(협력사 포함)의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오션에코텍의 울촌1산단 내 기존 공장은 모회사인 한화오션의 생산 전진기지로서 약 13만 평 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의 핵심 제품을 생산해왔다.

내년 10월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이 추가로 가동되면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오션에코텍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무탄소 선박 밸류체인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은 지난 7월 1일 보건 업무의 다양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조직 개편하여, 맞춤형 노인보건사업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맞춤형 노인보건사업 서비스 강화 호평

고흥군은 지난 7월 1일 보건 업무의 다양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조직 개편하여, 맞춤형 노인보건사업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고흥군은

어르신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와 ‘16개 읍면 무료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건강

(암)검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방문보건 전담 인력 49명은 4667가구 가정방문과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혈압·당뇨·노검사, 보건교육, 만성질환자 관리와 개인별 건강 위험 요인 파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한강 작가 ‘여수의 사랑’ 주제 온라인 독서토론

선착순 15명

여수시는 한강 작가가 여수에서 거주하며 집필한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주제 도서로 찾아가는 온라인 독서토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온라인 독서토론’은 전남도립도서관 주최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수시는 지난

달 30일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이순신도서관이 선정됐다.

온라인 독서토론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송래문학당 독서토론 전문가인 김승호 강사가 준비한 논제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원하는 여수시민은 시립도서관 누리집(yslib.yeosu.go.kr) ‘문화 프로

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자는 ‘여수의 사랑’을 완독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사전에 주어진 논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토론에 참여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여수의 사랑’을 시민들이 깊이 읽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확산된 독서 열풍에 부응해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